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상규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국경일을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 우리나라에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한글날'이 국경일로 제정되었으니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만을 포함하던 국경일에 '한글날' 하루를 더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국경일은 묘하게도 네 개의 절(節)뿐이었으나 이번에 한글날이 더 늘어나 네 개의 절과 한 개의 날이 더 보태어진 셈이다. 또한 가지 묘한 것은 앞의 네 절은 모두 공휴일인데 비해 한글날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다. 몇 년 전에 한글날이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이었다가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폐지된 적이 있어서 마치 국경일이었던 한글날이 이번에 다시 국경일로 지정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개의 '절(節)'에 대해 들여다 보면 이상하게도 모두 일제 36년간의 침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날들뿐이다. '삼일절'은 광복을 위해 조선인들이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요, '광복절'은 일제 36년간

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주독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요, '제헌절'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독립국가를 세우고 그 기틀인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요,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왕건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짓고 즉위한 날을 소급하여 우리나라의 최초 건국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개천절 역시 일제 36년 이후 조국 광복이념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네 개의 절(節)로 된 국경일은 모두 일제 침략과 관계되는 날뿐이다.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을 국경일로 한다면 상서롭지 않았던 지난 일제 36년간의 침략사와 관련된 날을 '나라의 경사(慶事)'로 여겨야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아직도 지난 민족적 수치스러운 역사의 현실에서 단 한 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이 네 개의 절은 전부 삼일+절, 제헌+

절 등과 같이 한자 조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한글날만은 '한글+날'과 같이 한글 조어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네 개의 국경일을 뜻하는 복합어 00절(節)의 의미는 전혀 '날'의 의미와 무관하다는 데 있다. '절' 또는 '24절기', '절'의 의미를 가진 것이 특정한 날을 뜻하지 않는다. '00절'과 같은 일본의 한자 조어 방식으로 만들어진 국경일의 이름이 일제 침략사와 관련된 국경일의 이름에만 붙어 있는 것은 왠지 탐탁하지 않다.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것이기에 다시는

그러나 4절 1날 가운데 가장 늦게 국경일로 지정된 '한글날'은 앞의 4절과 전혀 다른 날이다. 개천절 다음으로 오래된 날인 한글날이 국경일로는 제일 마지막으로 지정되었다. 한글날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인 '훈민정음'의 창제의 위업과 세종 정신을 기리며 기념하는 날이다. 세종대왕의 위업을 꼽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조선 초기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도 가장 뛰어난 치적을 남긴 분이다. 그런데 한글날 기념일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훈민정음'의 예의를 창안한 1443년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반포일인 1446년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남과 북에서는 각각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짜가 각각 다르다. 국가가 제정한 국경일조차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기왕에 제정된 10월 9일 한글날의 개념을 좀 더 확대시켜서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는 '세종의 날'로 발전시키는 일도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국경일도 이런 국민 전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거나 민족 역사를 한 차원 더 높이 발전시킨 날을 택하여 민족사의 기념일로 정하는 논의를 시작해 볼 것이다. <국립국어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절(節) 1날

그러한 민족적 굴욕의 전철을 되풀이 말자는 교훈을 삼기 위해 만든 국경일이라면 그 이후 현대사에서 민중들에 의한 민주화 투쟁의 날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5.16 군사정변을 발원한 날이라든지, 민중의 힘으로 독재 권력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한 6·29 민주화의 날이라든지 자랑스럽게 기념할 날이 많은데 왜 일제 36년간의 민족적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날들만 경축일로 정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판단된다. 지난 과거에만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민족의 자긍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뜻 깊은 날을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시설

'서남권개발' 노 대통령 임기내 구체화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노 대통령은 29일 무안 송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지역민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이 추진되는 전남 서남부 기업도시들의 초기 투자 유인을 위해 30~50년간 한시적인 혜택을 주고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장기발전전략이라는 목표 아래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의 레일을 깔고 이정표를 확실하게 심겠다"라고도 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크게 환영한다. J프로젝트 간척지 양도양수 등 서남권 개발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폄하하는 듯한 일부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

사실 지난 26일 오는 2020년까지 총 22조4천억 원을 투입해 목포·무안·신안 지역을 한 뿔해인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서남권종합발전구상'이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호남민심을 얻기 위한 대선용이라며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심지어 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여밖에 남지 않아 정권이 바뀌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서남권종합발전구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성사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서남권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도 노 대통령의 임기 내에 구체화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서남권 개발계획은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뤄진 21세기 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정권이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그 시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닭·오리고기 소비운동 확산 바람직하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급감했던 닭과 오리고기의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광주지역 유통업체에선 조류독감 발생 초기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의 매출이 60%까지 감소했으나 10% 선까지 회복했다는 것이다. 조류독감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정을 감안하면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전국 곳곳에서 닭·오리고기 시식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고 농협과 민간단체들도 소비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시청 등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구내 식당에도 삼계탕과 계란찜, 닭오리고기 등이 등장하고 있다. 닭·오리고기 소비감소는 잘못된 소문과 정보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상당수 국민들은 조류독감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에서 닭과 오리고기의 소비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축산농가와 유통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했다. 하지만 닭과 오리가 조류독감에 걸렸더라도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5분 이상 끓이거나 튀겨 먹으면 바이러스가 모두 죽어 인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아직까지 조리된 닭고기 등을 먹고 인체에 감염된 사례나 인간 대 인간을 통한 전염 케이스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계속협회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최근 정상적으로 생산, 유통된 닭고기를 먹어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20여명까지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닭·오리고기 소비운동은 보다 확산돼야 한다.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으면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수도 있다. 정부는 적극적 홍보와 함께 철저한 방역을 통해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고 사태를 하루빨리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최형섭. 현재 우리나라의 차량은 1가구당 1대 꼴로 약 1,500만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시대에 살고 있다. 차량이 많아보니 교통질서가 선진국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을 방영되고 있는 "좋은나라운동본부"라는 TV 프로그램에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양심 운전자를 추적해 금메달을 주며 교통질서 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생각했던 만큼 양심 운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서슴없이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아 우리 국민의 교통질서 의식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질서외식은 매우 낮다. 무엇이 그리 바쁘는지 대낮에도 신호를 무시

기고 이대원. 피카소, 세계 미술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그의 작품들은 어떤 대상을 특정 위치에서 고정된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곳에서만 진실할 뿐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다 생각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노력했을 때,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한번도 성 밖으로 나와 보지 않은 어

심야시간에도 교통신호 꼭 준수해야 하고 교차로를 건너가기가 일수이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듯하다. 오죽했으면 한 때 경찰에서는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단속하고자 했겠는가. 밝은 대낮에도 이러한데 하물며 심야에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심야시간에 신호를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고 신호를 위반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오히려 큰소리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심야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보행신호가 들어와도 달리는 차량들의 눈치를 보며 보행해야 하고 밤이 깊어질수록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은 늘어나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만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운전 생활을 하고 있는 택시의 경우는 심야시간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물적 인적 피해를 입혀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

장애인들에 일할수 있는 기회를 쯔쟁이 아니다. 장애인 취업률이 뛰어나서 한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곳의 역량이 강화되어 보충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다. 이제 편견의 성 밖으로 나와 장애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리고 그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어보자. 이런 조그만 시도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감면 및 장려금 지급이라는 실질적인 혜택 또한 입을 수 있다. 이제 편견의 성 밖으로 나와 장애인들의 진실한 능력 바라볼 그날을 기다리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장>

외국인 관광객 태웠다해서 불법주차 용인될수 있나 법원에 가져다 줘야할 급한 서류가 있어 승용차를 몰고 호남동을 지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승합차가 불법 주차, 길을 막고 서 있었다. 왼쪽으로는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지나가 끼어들기도 어려웠는데 승합차에게 경적을 울렸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결국 옆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없을 때 지나가면서 그 승합차 앞에 차를 세우고 승합차 운전자에게 "이런 곳에 차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따졌다. 그랬더니 그 운전자가 손가락으로 차 앞

독자마당 아이들에게 대중교통 예의절절 가르쳐야 자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린이 두 명과 엄마가 넓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정성적으로 앉을 경우 성인 두 명은 더 앉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장난을 치면서 좌석에 거의 누워있다고 했다. 자하철 안에는 선 채로 가는 사람도 꽤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 엄마는 주의를 주지 않았다. 이럴 때 엄마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기 마련이다. 때마침 그 자리 앞에 서있던 나이 든 노인

無等鼓. 패스트 푸드(Fast Food)는 말 그대로 주문하면 빨리 먹을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패스트 푸드의 원조는 미국 윌스트리트의 동네 식당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말 윌스트리트가 형성되면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딜러와 뺑커들에게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식사 대응으로 판매한 것이 시초다. 패스트 푸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와 더불어 미국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최대의 패스트 푸드 기업 맥도날드의 성공 사례는 대학과 업계의 주된 연구대상이었다. 맥도날드제이션(McDonaldization)으로 정정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내년부터 패스트 푸드 학내반입 금지운동도 전개키로 했다. 패스트 푸드는 '빠르고 간편함'을 추앙하던 20세기 물질문명이 낳은 산물이다. 그러나 건강을 중시하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